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3호 [무게 제25316호] 주제 105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  
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실감깊이 새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  
계급은 공장을 세상에 내  
놓고 자랑할수 있게 현대적  
으로 꾸려놓고 질 좋은 비단  
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판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전면  
시키였을뿐만아니라 70일  
전투기간 상반년도 인민경  
제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수행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고 정선, 그 기쁨으로 총정의 200일전투  
에서도 날여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이 보고싶어 찾아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들어보시였다.

1947년 4월에 창립된 김정숙평양제사  
공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가슴뜨거운  
혁명사적들이 수많은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  
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사적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자육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아버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  
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09년  
1월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  
오시여 공장이 생산도 잘할뿐만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칭찬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유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비단실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도 모든 영예를 고스란히 공장로동  
계급에게 안겨주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으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

록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삼매 투쟁하  
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  
활동정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사직장,  
전방직직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마  
다에서 질 좋은 비단실을 생산하기 위해  
중산의 동용을 높이 올리려고있다고 뜻내  
기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남은 설비들을 들여내고 현대적

이 고속화된 설비들을 창안도입, 제작설  
치하여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였을뿐  
아니라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푸는데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칭찬하시였다.

공장에서 기술인재육성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도록 과학  
기술보급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과학기술  
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

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영장  
을 갖춘 편의시설, 탁아소,  
문화회관 등을 손색없이  
꾸려놓았을뿐만아니라 공  
장의 수림화, 원림화, 파수  
원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당정책이 구석구석 딱박  
치는 공장, 공장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려놓은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공정을 들어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  
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 과학  
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하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려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  
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  
작한 위생용품생산설비는  
물론 생산되어나오는 위생  
용품의 질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정령 못할 요소가 없  
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  
장이 지지하고있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문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창  
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전면시립데 대한  
문제, 비단실생산의 기본원리인 누에고  
지생산량을 늘일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공장과 해당 부  
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니 별세상에 온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공장을 천리마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천리마공장값을 한다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이어서 그런지

일본새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어느곳을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생산에 있어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있어서 자신께서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이 오늘처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공장, 전형단위로 될수 있는 것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래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당이 래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무조건 완수하며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도반





#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리는 승전포성 22동의 살림집팔조공사 완성, 3000여세대의 살림집팔조 형성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실부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스런 헌신로 힘차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렬명거리건설장에서 대비역,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민군 김정근소속부대에서 33층살림집팔조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김정근소속부대에서 대성 53-74호층 35층살림집팔조공사를 빛나게 마감하였다. 20일에는 대성 58-114호층, 대성 52-117호층 10층과 12층살림집팔조공사가 연이어 끝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하여 렬명거리건설장으로 20일현재까지 22동의 살림집팔조공사가 완성되고 3000여세대의 살림집팔조가 형성되었다.

6월에 들어와 8일과 9일, 11일과 12일, 14일과 15일에 이어 또다시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리는 승전포성은 렬명거리건설장에 참가한 군인들과 전일자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피아하고있다.

파 날을 이어갔다. 조선인민군 김정근소속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지난 18일 대성 51-42호층 33층살림집팔조공사를 끝내고 승리의 함성을 퍼쳐울렸다. 이곳 부대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명을 시작하신 52층을 맞으며 팔조공사를 기어어 완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돌격전에 파갑히 진입하였다. 부대장조에서는 승리의 담보로 병사들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에

서 찾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였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는 혁명적열정을 가세할것을 요구하며 단숨에 진격시키며 승리의 함성을 퍼쳐 울렸다.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명을 시작하신 52층을 맞으며 팔조공사를 기어어 완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돌격전에 파갑히 진입하였다. 부대장조에서는 승리의 담보로 병사들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지의 애국취업을 자기의 손으로 실현해간다는 긍지와 혁명적열정을 가슴부터 새겨안은 병사들은 휘발주류와 혼합물마달 등 모든 품종마다에서 두말, 세말씩 일감을 맡아 안고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 나갔다.

팔조공사의 나날 증정에는 10시간이상 걸리던 화선조립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단 18시간만에 한층의 팔조가 완성되는 기적이 창조

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정근소속부대장병들도 19일 대성 53-74호층 35층살림집팔조공사를 결속하고 건물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대일매일의 전투실적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제시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고드린다



### 과학기술강화추진사업

#### 성과의 비결은 인재 중시한다 있다

##### 강계시당 위원회 사업에서

3년전 시당위원회에서는 주제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과학기술을 강화하여 과학기술강화추진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시와 함께 과학기술강화추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과학기술강화추진사업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계시당위원회는 인재 중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재 중시 정책이란 어떤 분야에서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여 그 분야에 크게 공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계시당위원회는 인재 중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재 선발, 육성,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재 선발은 인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 육성은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 활용은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계시당위원회는 인재 중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재 선발, 육성,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재 선발은 인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 육성은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 활용은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총화모임을 리용한 기술학습

#### 재령군 북지리당위원회에서

재령군 북지리에서 인민군들의 하루사업총화모임을 적극있게 진행하고 있다. 총화모임에서 하루사업총화와 과학기술학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일으켜야 하고 과학기술발전이 선진국을 건설하는 기초이다.> 모내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 5작업반에 내각간 판위위원회의 한 일군이 영양마을에 대한 소식제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대해 강연하였다. 판위위원회는 그 중요한 일군의 하나를 농사를 책임지고 인민들의 과학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판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판위위원회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앞질러가며 보강해준 사업조건

#### 신의주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지도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을 통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줄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해 농사에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해간다. -강성구역 생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리승



